

# 고정관념 벗어난 시간... “또 다른 나 발견”

### 한마음선원 본원 청년회, 1월 8~10일 부산지원서 ‘겨울수련회’

대행 스님 말씀 큰 주제로 진행 “통에서 벗어나야 굴릴 수 있다” ‘팔정도’ 프로그램 이색 ‘눈길’ “내 안의 불성 존재에 믿음 생겨”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 1월 8~10일 부산지원에서 ‘청년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다. 본원 청년회 법우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대행 큰스님의 말씀인 “마음이란체가 없기에 우주로 벗어나 날 수도 있는 것이니, 넓고 이해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도, 굴레에서도, 또 창살 없는 감옥에서도 벗어나 날 수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는가”란 가르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마음선원 측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 속 고민들에 대해 외부 환경을 탓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자신이 바뀌는 데 있다”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 생각과 집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돌려놓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박 3일 간 진행된 각각의 프로그램은 ‘팔정도(八正道)’를 작은 주제로 구성했다. 우선 참가자들은 각자의 ‘정념(正念, 바른생각)’을 찾고자 10개 조로 나뉘었다. 정진·관념·미래·인연·습관·화·결혼·한계 등 주어진 10개 주제 중 자신이 참구(參究)하고 싶은 것을 고른 후, 같은 화두를 가진 사람들끼리 한 조가 됐다. 또한 ‘정사유(正思惟, 바른 의사)’를 주제로는 ‘만(萬)가지 미(味)’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법우들은 속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음료수병 중 1개를 고른 후, 자신의 컵에 따라 마셨다. 시음 후 참가자들이 서로 마주서 ‘윤회질’을 올리는데, 동안 스님이 음료가 남은 컵에 맑은 물을 부었고, 절을 마친 청년들은 한층 열어질 법한 숙어를 다시 마셨다. 이에 대해 청년회 법사 혜은 스님은 “구정물에 새 물을 부으면 맑아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한다면 스스로도 차츰 맑아지고 열어질 것”이라며 가르침을 전했다. 특히 이튿날 오후 1시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였다. 정혜심 법우의 ‘홀로 아리랑’ 공연에 이어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 1월 8~10일 부산지원에서 ‘청년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다. 9일엔 부산역 광장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였다.

청년회 풍물패의 길놀이, 선법가 ‘대장부’, 율동과 함께 가수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부르기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청년들은 스님과 담선, 부산 시내 둘러보기, 통도사 진신사리 잡배 등 시간도 가졌다. 김정은 법우(여·25)는 “나는 그동안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나로 거듭난 것 같아 마음이 풍요롭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배득렬 법우(남·25)는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법우들과 깊은 이야기

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마음 낼 수 있던 시간”이라며 “이번 계기로 내 안에 모든 것을 갖춘 불성이 있다는 믿음이 조금이나마 굳게 섰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수련회 동안 쓴 노트를 보며 다잡아야겠다”고 웃어보였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본원 청년 법우들이 부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면서 “주인공은 우리 마음의 근본, 공한 자리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근본의 공한 자리에 놓고 또 놓아서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환영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불교통번역봉사자 교육 5기 모집

사카디타코리아, 총 12주 과정

사카디타코리아(지부장 조은수)는 오는 2월 25일까지 불교통번역지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인 ‘G.E.P’ 5기를 모집한다. G.E.P는 국제대회에서 영어 통번역 자원봉사를 하게 될 봉사위원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총 12주 과정이다. 3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부처님오신날 제외) 오전 9시 10분 서울 법통사에서 열린다. 교육주제는 △불교와 여성 △중국의 변화와 우리의 주제적 수용 △외국인이 본 한국의 젊은이 △세계 불교여성 현황 등이다. 수료자는 수료증을 받으며 국제대회 통번역 봉사 참여 시 봉사확인서가 발급된다. 희망자는 홈페이지(www.sakyadhita.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sakyadhita.korea@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 제주 해군기지 법당 해관사 낙성

대웅보전 92평 · 요사채 87평 규모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소재 제주 민·군 복합항 해군기지에 군장병들을 위한 전법도량인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9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군법당 해관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해관사는 화합과 공존이라는 목적 아래 국군장병과 지역주민을 위한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낙성됐다. 특히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해군과 국가의 발전을 축원하는 의미도 담겼다. 해관사는 대웅보전 92평, 요사채 87평, 회랑, 외부 화장실 등 군예산 22억 원으로 건립됐다. 지난 2014년 1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현장 방문 후 설계를 지도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한지 1년 5개월만이다. 하지만 불상 등 법당 내부 조성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군종교구 차원의 모연을 통해 불사금 5억여 원

을 마련, 삼존불과 단집·불단·단청 등을 조성했다. 특히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신중·지장행화, 前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호국법종, 범어사 주지 수발 스님이 삼존불과 불단,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이 후불행화를 후원했다. 낙성법회에서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성현들이 세간에 출현하심은 모든 생명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함”이라며 국가 및 부대 발전 위한 노력과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국가 중요 시설인 해군기지에 많은 역경을 딛고 해관사가 완공됐다. 지역주민과 함께 국군장병이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관사 혜정 지도법사는 “낙성을 통한 인재봉사를 시작으로 해관사는 군장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9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군법당 해관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병과 지역주민의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제주사암연합회 스님과 해군 제기동전단장 남동우 준장·공군본부 군종실장 각원 법사·해군 및 해병대 군승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캄보디아 주민 힘모아 ‘공부방’ 문 열다

위드아시아, 구랍 30일 짜빠여이 마을 ‘우리공부방’ 완공식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위드아시아’가 캄보디아 짜빠여이 마을 주민들 및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지었다.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캄보디아 프레이벵주에 위치한 짜빠여이 마을에 ‘우리공부방’을 건립하고, 구랍 30일 완공식을 개최했다. 위드아시아는 2013년부터 공부방 운영·지원해왔으나, 마을 주민들이 공부방 건립을 요청하며 토지를 기증하는 등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기존 공부방 규모를 확장한 것이다. 위드아시아 측은 “짜빠여이 마을 주민들은 공부방 건립 기금을 마련하는 동안 부지 정돈, 책걸상 보수 및 제작 등 실시하며 함께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은 직접 공부방 주변에 대나

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공부방 운영에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더 큰 꿈을 꾸길 기원한다”면서 “위드아시아는 아이들 꿈을 응원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사)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및 국내 빈곤·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단체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2015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인 ‘짜빠여이 마을 공동체형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공부방’ 건립을 실시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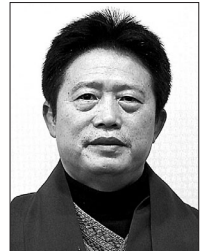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캄보디아 프레이벵주에 위치한 짜빠여이 마을에 ‘우리공부방’을 건립하고, 구랍 30일 완공식을 개최했다.

## “1천만 시민 발로써 전법 이어나갈 터”

서울메트로법우회 제7·8대 회장 이취임

천만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메트로 소속 불자들이 병신년 새해를 맞아 새 회장단을 꾸리고, 끝없는 전법·포교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메트로법우회는 1월 12일 오후 7시 지하철 종합운동장역사 내 법당에서 ‘불기 2560(2016)년 1월 정기 신년법회 및 제7·8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과 봉은사 포교국장 환성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선진규 봉화산 정도원장, 서울메트로법우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8대 회장에 취임한 김영만 회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천만 시민의 교통중심 역할을 하는 서울메트로법우회원들은 수행과 포교를 하나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보살행으로 노력하신 지도법사스님과 회장단,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자”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은 법문에서 “칠불회전”을 설명한 뒤 “전



대 회장단의 노력을 이어 받아 앞으로 끝없이 메트로불자법우회가 번성하길 바란다”며 “훌륭한 스님, 도반들과 함께 도를 닦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왕성하게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법회에서 서울메트로법우회는 봉은사 포교국장 환성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제6대 회장인 이종성 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부회장과 감사 등을 임명, 8대 회장단을 구성했다. 한편, 1991년 출범한 서울메트로법우회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출범 후 1992년에 현 종합운동장역사에 법당을 마련하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2013년 조계종 포교원 신도단체로 등록됐으며, 현재 200여 명의 불자들이 봉사활동과 불교경전 법회 등 왕성한 실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제2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초급과정(불교의식) 6개월 과정

- 도량서, 종승, 향수해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 39 위작법, 관음시식(불교기초교리)

•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일관

\* 6개월 수련 후 법사자격증 부여, 숙식 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에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6. 3.1(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문 의 : 보경사 총무소 054-262-1117 강 주 스 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 운

###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서, 종승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패불이운), 대령, 권공, 옹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오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총사이운, 총사영반, 정안약식, 시달림(대), 예수역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6. 견학및캠프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